

## 아픈 가슴 빛이 되어



조 영 란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마석우리 474)

**때** 아닌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차라리 엿저녁에 이렇게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비 오는 것조차 원망스러웠다.

장대비를 맞으며 나는 첫 돌이 갓 지난 어린 것을 들쳐업고 미친 사람처럼 허둥대며 친정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집은 시커멓게 타 무너졌고 타다 남은 어지러운 잔해와 앙상한 서까래 기둥만 썰렁하니 남아있는 것을 차마 제정신으로는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갑자기 온 몸의 뼈속까지도 진력을 다 뽐어낸 것처럼 맥이 탁 풀리고 힘이 빠지며 노랗게 흐려지는 눈을 자꾸만 비벼댔다.

내가 결혼 전까지 26년동안 살아 온 31평짜리 낡은 한옥 일망정 우리 삼 남매가 어머니를 일찍 여의는 불행에도 아랑곳 없이 어찌면 가여우신 홀아버지의 아버지를 모시고 이웃의 호평을 받으면서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나름대로는 깨끗하게 살았는데…….

만만인 내가 결혼하던 날, 애써 눈물을 감추시느라 어쭙잖은 미소를 띄우시던 아버지께서 착하다 착한 두 동생과 함께 중화상으로 세 식구 모두 부평의안병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니 과연 이 노릇을 어찌해야 옳단 말인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생전 처음으로 땅이 꺼질듯한 처절한 절망을 맛보게 되었다.

동네 쌀가게 집 정아엄마가 부엌에서 가스가 새는 줄 모르고 연탄불을 갈아 넣다 가스가 폭발하는 바람에 정아 엄마가 굉장히 크게 다치고 집도 많이 타 버린 것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저 막연히 불나면 무섭구나. 하고 그 때 며칠간은 불조심의 신경을 바짝 곤두세웠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이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화재를 직접 당하고 보니 요란한 경적을 울

리며 지나가던 불자동차 소리도 그제 다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내 일이었음을 뒤늦게나마 절실히 깨달았다.

우수(雨水)가 지난 2월 24일 저녁은 아직도 남아 있는 마지막 추위가 킷부리를 시럽게 했다.

자동차 부속품 생산공장에 다니는 바로 밑의 남동생이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건 밤 10시가 넘어서 였다.

여고 2학년인 막내동생 영은이는 다른 날보다 훨씬 늦은 영철이 오빠의 저녁을 차려 주기 위해 부엌으로 나갔다.

친정집 부엌은 비좁은 편이어서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도 “제발 부엌 좀 넓었으면 좋겠다”고 늘 말씀 하셨다. 좁은 부엌은 방으로 통하는 쪽문이 하나 있고 큰 부엌 문을 열면 연탄을 쌓아 두는 헛간 비슷한데가 있어 지저분한 세간 살림살이도 두고 부엌이 좁아 날씨가 약간 풀리자 석유곤로도 거기에 내놓고 사용해 왔다. 바람막이는 되어 있었으나 겨울엔 무척 추웠다.

그 날도 막내동생은 식은 찌개를 데우기 위해 석유곤로를 사용하다가 춤다는 생각에 불이 커진

석유곤로를 들고 조심스럽게 부엌의 큰 문을 열면서 들어 오다가 “아뽀사!” 그만 문턱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하필이면 그날 따라 석유를 가득 채웠고 곤로를 안고 넘어지는 바람에 사방으로 석유가 흘렀으며 부엌으로 헛간으로 말할 것도 없이 삽시간에 온통 불바다가 되었고 석유가 튀겨 문은 여동생의 몸에도 눈 깜짝할 사이 불이 붙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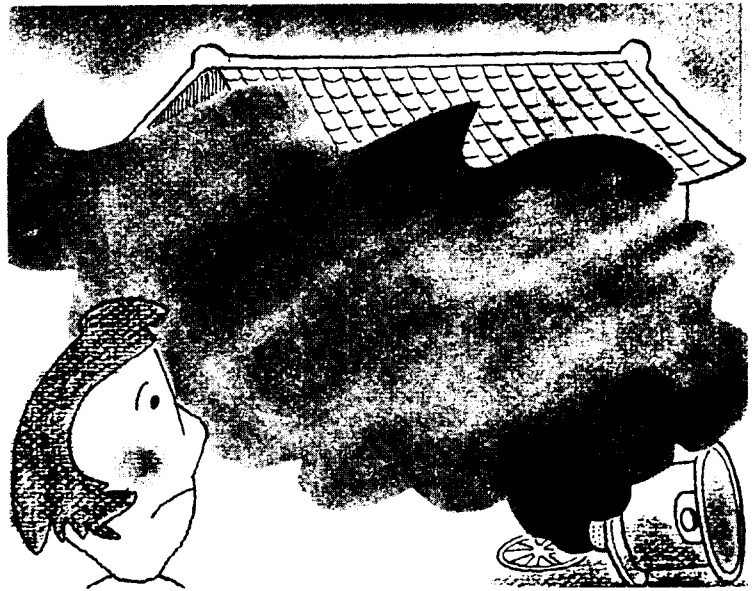
뜨거운 불길에 휩싸인 영은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필쩍필쩍 뛰면서 “오빠아-!”를 다급하게 불렀고 건넌방에서 옷을 갈아 입던 영철이는 귀를 찢는 듯한 영은이의 외마디 비명소리에 쪽문을 박차고 불구덩이 속의 부엌으로 내려섰으나 좁은 부엌에서의 불은 이미 손을 쓸 수 없을만큼 사정없이 크게 번져 타오르기 시작했다.

영철이는 자기 동생이 불에 타 죽는다는 무서운 현장을 보고 정신없이 수돗물을 퍼다 끼얹었지만 점점 거세어지는 불길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불이야! 불, 불이야!”를 수없이 소리치면서 기진맥진한 채 불에 타던 영은이를 가까스로 구해 냈으나 자신도 언제 어떻게 다쳤는지 모르게 하반신을 심하게 데인 채 바깥 쪽을 향해 부엌바닥에 그냥 쓰러졌고 집은 부엌쪽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며 검은 연기가 높이 치솟고 별건 불기둥이 어둔 밤을 환히 밝혔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분간할 수 없는 두 사람은 동네 사람들이 병원으로 옮겼다.

이 때, 집에서 4백여m쯤 떨어진



진 시계점에서 시계수리 기술자로 일하시던 아버님께서 뒤늦게 달려 오셨으며 주위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사나운 불이 번져오는 안방으로 뛰어 들자마자 지붕이 무너져 내려 앉았다.

왠지 저렇게 웅성거리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선뜻 아버지를 구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었고 그제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3대의 소방차가 왔으나 골목길이 좁아서 진화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집앞까지 가깝게 오지 못하고 다만, 소방대원 두 사람이 불속으로 뛰어 들어 천신만고 끝에 아버지를 구하여 역시 병원으로 보냈다.

그 후, 말로 표현하기엔 너무도 처참한 고통의 병원생활 끝에 아버지께서 먼저 퇴원하시고 영철이는 20여일 늦게 4개월만인 지난 6월에 퇴원하였으나 그 때까지 세 사람의 병원 치료비로 불

난 집과 함께 전 재산을 몽땅 날리고 말았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큰 문제는 막내동생이 아직도 언제 퇴원할지 막연한 상태다.

오랜 병상에서 돈도 걱정이지만 영은이는 아무래도 악마같은 화흔(火痕)의 흉터가 심할 것이 분명하며 특히 목에서부터 얼굴에 이르는 턱과 귀볼부분은 피부 이식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미 가슴과 팔등은 두 차례나 수술을 끝냈다.

영철이도 좋아리는 수술을 하였으나 다행히 직장에서 가입한 의료보험 혜택이 있었고 아버지도 역시 직계존속의 부양가족으로 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정작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영은이는 보험혜택이 없어 일반환자로 입원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치료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었다.

수년 동안을 어렵게 모은 영철이의 장가 밀린 돈까지 합쳐 지금까지의 세 사람 병원비는 대략

2천여만원이 들었으며 앞으로 영은이의 병원비는 줄잡아 1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의사 선생님께서 걱정스럽게 말씀 하셨다. 더군다나 敗血症(피속에 화농균이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병)까지 겹쳐 십사리 수술도 못하고 氣道를 절개하여 코속으로 튜브를 꽂아 넣고 미유이나 과일즙 등으로만 식사를 대신하는 상태는 정말 안타까와 보는 내가 죽을 지경이었다.

조심해야했다 하면서도 한 순간의 별것 아닌 작은 실수가 이토록 처절하리만큼 가혹한 일이 벌어질 줄 그 누가 짐작이나 했으랴. 그 뿐만이 아니었다.

이식수술을 하기 위하여 다치지 않은 심한 부분의 피부를 생으로 도려내고 나면 거기도 또한 상처부상이요, 링겔주사를 놓을 곳이 없어 아예 살속에서 혈관을 찢고 가다라란 튜브를 넣어 링겔주사를 맞는 일로 벌써 세 군데나 또 다른 수술을 해야 했다. 근육주사 자리도 이젠 아예 바늘자국으로 별집처럼 되어 묻자 그대로 만신창이였다.

영은이는 정말 불쌍하고 애처로웠다.

일찌기 엄마를 잃고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더니 이제 좀 괜찮겠다 싶은 부럽에 이 지경이 되고 보니 그토록 인자하시던 어머니 생각이 간절했다.

그리곤 이내 내가 철딱서니 없이 결혼을 빨리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가벼운 딸들은 혼기를 넘기기도 하고 아니 결혼까지도 마나 하면서 어린 동생들을 위해 같이 살길만 나는 참으로 뻔뻔스럽

고 모진 여인인가 생각했다.

아버지를 붙잡고 복받쳐 오르는 설움을 삼키며 울어도 보았고 가엾고 착한 영철이의 짝아진 오른쪽 다리(중화상으로 상처가 아물면서 근육조직이 수축된때문임)를 감싸주고 한없이 흐느끼기도 했으며, 불쌍한 영은이의 병실 침대 곁에서 징그럽고 흉하게 주름진 가슴과 팔을 쓰다듬으며 밤새도록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길 없었으나 이제는 모두 다 소용없는 일이었고 실은 올 자격조차도 없는 차거운 딸녀이였는가 싶었다. 오로지 이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참으로 반갑고 고마울 따름이었다.

지금까지 그토록 무거운 삶을 살아 오면서 효녀 노릇 한번 제대로 못한 채 막히고 맺힌 일들은 으레히 고달프고 쓰라린 거로구나 하고 가볍게 넘긴 자신이 못내 부끄럽기도 하였다.

그렇다. 이 세상 사람 누구든지 너, 나 할것없이 자신의 앞날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살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제다. 닥쳐 올 재난은 예고가 없기 때문에 미리 철저히 예방하는 자만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만큼은 우리 집만은 절대로 불이 날 염려가 없다고 막연히 안일하게 믿는 어리석은 생각을 새롭게 가다듬어 전기배선은 어떤가 가스는 안전화가 난로를 여기다 놓으면 위험하지나 않나 늘 다시한번 주의 깊게 보고 확인하는 생활만이 곧 우리와 같은 화재 피해자로서의 예외자가 될 수 있으리라.

지혜롭기 때문에 불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필연적인 우리의 발

달된 생활속에서 결코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화재의 재난이다.

참혹한 불길을 보고도 여유있게 강건너 불구경의 잔인한 방관자였던 내가 결작이라 일컫는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남북전쟁에서 戰火가 휩쓸고 간 불타던 거리가 바로 내 친정집 화재현장이었고 「타워링」 영화에서는 높다란 고층 건물이 불에 타며 와르르 무너지는 아버지환의 이수라장에 친정 아버님과 두 동생이 끼어 있었다는 착각 아닌 몸서리치게 무서운 현실에, 웅색한 삭월세 단칸 방으로 털썩 주저앉게 된 빈털터리로 기구한 불구자가 되어버린, 그것도 셋이나 되는 친정 식구들을 어떻게 해야할지 깨어있는 내 感觀으로 지켜보기엔 울부짖으며 흘릴 눈물조차 이제는 메달라 버렸다.

불난 뒤에는 항상 말이 많다. 그러나 “아차!”하는 한 순간의 실수나 부주의 혹은 “설마!”하는 바보스런 생각에 화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비정한 死神이 되어 촌꾼의 용서와 자비를 배풀지 않는다.

이제는 하루 빨리 영은이가 완쾌되어 지긋 지긋한 병원에서 퇴원하는 것이 큰 소원이다. 비록 흉한 얼굴과 손마저 오그라 붙은 만신창이의 험한 육신이 되겠지만 앞으로 평생을 불조심 하면서 살겠거니 생각하니 오히려 믿을 직스러웠으나 한편으로는 불쌍한 마음이 자꾸만 들어 수면같은 눈물이 또한번 주루루 흘러 내렸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대도 불은 항상 보물처럼 소중한 다물 일이다. ❀